



## CK- I 창조기반 첨단 해안도시를 위한 건설 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「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- 해외연수」 결과보고서

전 공	건축학	성 명	이oo	학 번	201325***
파견대학	Hochschule Bremen	파견기간	2017.09.01.~2018.02.28		
<b>(1) 파견학교 개요 (학교학교 위치와 연수관련 기본정보)</b>					
<p>독일의 북서부 브레멘에 위치한 Hochschule Bremen. 독일에서 Hochschule는 일반 대학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, 실무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합니다. 저는 Faculty2:도시건축학부 소속으로 한 학기 파견되었습니다.</p>					
<b>(2) 연수지원을 위한 개인별 준비내용</b>					
<p>영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영어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. 또 교내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해 유럽에서 오는 교환학생을 먼저 만나 도와주고 간접경험을 했습니다. 처음 유럽에 가는 것이라, 많은 곳을 여행할 생각으로 유럽여행 준비도 틈틈이 했습니다.</p>					
<b>(3) 연수 소요 비용 (학비, 기숙사비, 생활비 등)</b>					
<p>학비는 파견교가 아닌 자교(부산대)에 내게 되어있습니다. 생활은 기숙사가 아닌 Flat에서 하여 매달 300유로를 냈습니다. 유럽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면 생활비를 한국에서보다 아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많이 먹는 편이라 생활비가 매달 30만원 은 기본적으로 나갔고, 여행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.</p>					
<b>(4) 연수중 일과 (학교생활, 수업, 활동 및 여가생활)</b>					
<p>한 학기동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,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. 수업은 2~3과목을 수강했고, 매주 축구와 클라이밍을 했습니다. 여행은 적어도 2주에 한번은 가도록 했습니다. 한국인 친구들과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, 외국인 친구들과 파티도 했습니다.</p>					
<b>(5) 연수 소감 및 기타</b>					
<p>유럽이라는 환상 가득한 대륙에 처음 발 디디고,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았습니다. 다양한 삶과 문화를 보고 느끼며 우리나라의 장단점을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.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나아갈 길도 느껴지고, 문화 차이 속에서 열린 사고를 가지면 서로를 알아 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. 교환학생 체험은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인 지식과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, 값진 체험을 하도록 지원해주신 CK 사업단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</p>					

(6) 연수 내용



설계 크리틱



거주한 Flat 앞



Bremen 야경



독일어 조별과제 팀



이탈리아 Mantova 도시설계 워크샵



사하라 사막 여행

창조기반 첨단 해안도시를 위한 건설융합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 귀하